

국내여건에 맞는 제품개발과 최대한의 서비스에 초점을...

□ 취재/이창훈 기자



하태식 부사장

생 산성 향상을 위한 시 설자동화는 생산원가 절감이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국내양계농가에서 용되고 있는 자동화 기자재의 경우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여건에 부적합하거나 또는 기술제휴 형태로 생산, 공급되고 있어 양계농가에서 구입시 가격이나 구입후의 애프터서비스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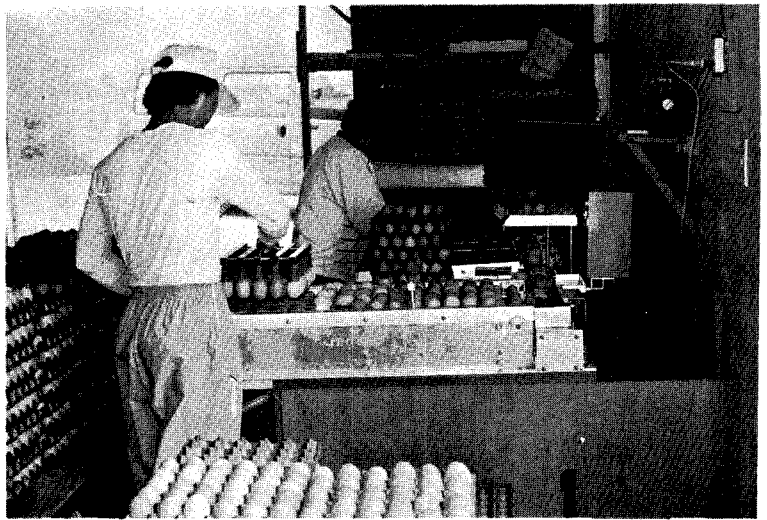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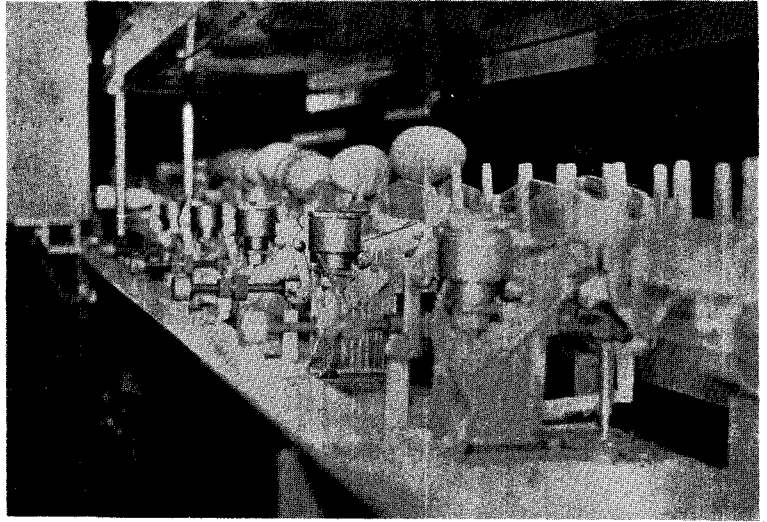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일부 몇몇 업체에서는 꾸준한

기술개발로 국내여건에 맞는 기계를 개발하여 가격면에서나 애프터서비스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한일자동화기계(주)(대표이사 : 정복남, 50세)는 이러한 업체중 대표적인 케이스로 최근들어 산란계 농가의 가장 큰 일거리 중의 하나인 계란 선별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선별기를 개발하여 산란계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이 한일자동화기계(주)의 선별기를 개발한 강오석 전무(36세)는 양계쪽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지만 우연히 양계기구를 생산하는 기재 업체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곳에서 느낀것은 외국의 선별기는 규모면에서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인 국내여건에 부적합하고, 가격면에서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기계고장시 애프터서비스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농가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내여건을 감안, 독자적인 개발에 착수하여 6개월간의 노력끝에 기계식이 아닌 전자식 계란선별기를 개발하였다고 한다. 이



〈농장에서의 계란 선별〉

선별기는 부피가 기존의 국내 농가에 공급된 선별기에 비해 1/3로 축소되었으며, 소규모 농가를 위한 수동선별기(HI-5500)와 시간당 8천개 정도를 선별할 수 있

는 자동선별기(HI-8000) 등을 생산하여 선택의 폭이 넓고, 가격 또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오차율이 적으며, 유지비도 2년마다 전자석만 교체하면 됨으로 유지

비가 적게들어 생산시작 1년도 안되어 200여대의 선별기를 공급하였다.

현재 한일자동화기계(주)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하태식 부사장(33세)은 이렇게 양계농가에 호응이 좋은 이유에 대해 부피축소에 의해 설치가 용이하면서도 정렬은 오히려 잘되고, 오차율이 적고 가격 또한 저렴하여 국내농가에서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며, A/S면에서도 고장 접수 시 일일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양계농가가 기계고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록 하고 있어서 양계인들에게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는 기계생산에 12명의 직원이 참여, 일일 선별기 2대, 정렬기 2대를 생산하고 있지만 수요급증으로 인한 공장 확대가 절실하다고 판단, 대전 산내동에 1,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해놓고 있으며, 그곳으로 이전되면 회사 규모가 대폭 커짐은 물론 판매후의 A/S에도 좀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양계인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줄 것이며, 또한 현재는 생산품목이 수동선별

기, 자동선별기, 세란기 등 3가지에 국한되어 있지만 좀더 폭넓게 제품개발에도 주력 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무분별한 외제품 선호 현상이 전국민에게 만연되어 있고, 이에 따른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자동화기계(주)는 국내여건에 맞는 제품개발은 물론 철저한 애프터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어 많은 양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계**

양 계 유 통

- 분양 : 병아리, 종추
- 출하, 삼계, 세미, 센타, 하이, 노계
- 하이블럭, E-에이드 판매
- 양계기계 · 기구, 자동화설비

신용을 신조로 하는

권 지 축 산

전북 이리시 동산동 1046-2번지
 TEL : (0653) 842-0255~8
 FAX : (0653) 842-0259